

아버지의 사회적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김 은 지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지금까지 아버지-자녀관계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양육활동에 초점을 두었고 보다 광의의 개념인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육신념이라는 것은 단순한 태도나 가치를 넘어서 인지적 요소의 구성체로서 양육행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족의 소득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에는 차이가 있는지, 둘째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 척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 척도를 아버지와 선생님보고에 의한 설문지 조사로 하였다. 측정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척도는 Mills와 Rubin(1990)의 양육신념 접근 중에서 주도적 신념(proactive belief)에 초점을 두고자 Cheah(2001)가 개발한 '사회적 기술 질문지'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세 가지 사회적 행동(나누기, 부정적 감정조절하기, 도와주기)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묻고 있다. 즉, 아버지는 사회적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녀가 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못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은 어떤 것인지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 척도는 Ladd와 Profflet(1996)의 CBS(the Child Behavior Scal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네 가지 하위요인-공격성, 친사회성, 따돌림, 불안-두려움-을 선택하여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CBS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각 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1의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중에서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와주기 행동을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원인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일시적인 내적인 상태에 원인을 두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미성숙이나 기질에 그 원인을 두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가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을 양육

환경에 두는 반면 여아가 잘 못하는 원인은 학습이나 강화의 부족에 그 원인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의 지도방법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나누기 행동의 지도방법에서 남아의 경우 모델링의 방법을 많이 보고한 반면 여아의 경우 제안하기의 방법이 가장 많이 보고되어 집단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인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보면,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에서 친사회성만이 부정적 감정조절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부정적 감정조절을 중요하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아동을 가진 우리나라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은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각 신념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도 나타났다.